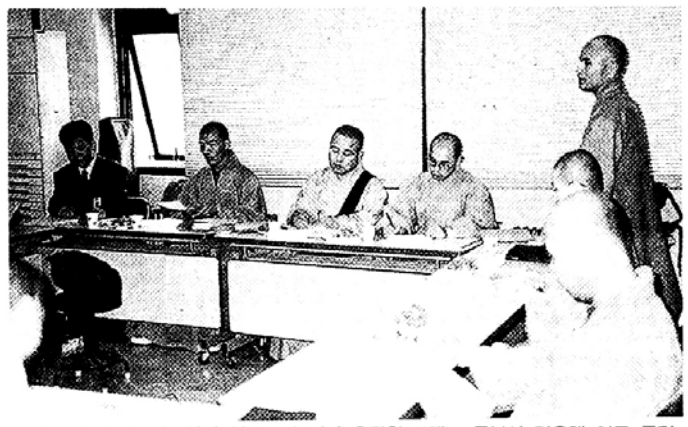
정기법회 의존…지역포교 '부실'

조계종 '교구본사 포교실태' 설문·세미나

재정·인력부족-소임자 무관심등 이유
'포교지리학' 도입 지역 여건 파악 필요



◇조계종 포교연구실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11개 교구본사 가운데 인근 주민을 위한 포교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사찰은 5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3월 31일 열린 포교국장 세미나 모습.

조계종 교구본사들은 인근주민 포교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없이 초하루와 재일법회 위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근주민을 위한 서비스도 대부분 시행치 않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3월 한달 동안 포교연구실이 '교구본사 인근지역 포교상황 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같은 주제의 설문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설문에는 24개 교구본사(선암사 제외) 가운데 11개 교구본사가 응답했다. 포교연구실은 애초 3월31일 열린 포교국장 세미나에서 설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설문지 응답사찰이 적어 발표하지 않았다.

포교연구실은 회수율이 적은 것에 대해 "교구본사의 포교에 대한 무관심의 한 표현"이라고 풀이했다. 설문응답 사찰은 용주사 해인사 고운사 신흥사 대흥사 범어사 화엄사 법주사 쌍계사 월정사 불국사 등이다.

'인근주민 포교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묻는 질문에 군법당 및 교도소법회 지원(1곳), 여름수련대회 개최(1곳), 불교교양대학 운영(1곳), 인근 학교 장학금 지급(1곳),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복지시설 운영(2곳), 각종 법회 봉행(5곳) 등으로 주민에 대한 욕구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을 시행치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각종 법회와 여름수련대회는 엄격한 의미의 지역주민 포교프로그램과 거리가 멀어 제외한다면 실제 인근주민을 위한 포교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5곳 뿐이다. 사실상 교구본사의 인근주민 포교는 백지상태나 다름없다는 결론이다.

인근주민 포교가 저조한 원인에 대해서는(복수 응답) 재정 및 인력부족(1), 소임자들의 무관심(2), 타종교의 적극적 활동(2), 잦은 소임자 변경(1), 유교적인 분위기(1)와 주민참여 저조(1)라고 답했다.

한편 31일 열린 '사찰 인근지역 포교방안' 주제의 포교국장 세미나에서 화랑스님(전 범어사 포교국장)은 교구본사의 포교부재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진단(social diagnosis) 방법을 차용, '포교지리학'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즉 인구밀도, 직업분포, 산업, 교육환경, 주민생활상, 보건, 경제, 풍기, 오락, 풍습, 여성과 아동의 문제, 종교분포의 특색, 사회기관의 분포 등의 항목에 걸친 세밀한 지역 파악이 포교를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설명이다. 화랑스님은 또 위 항목에 따른 세부항목도 제시했다. 포교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문화 경제 가정 개인 등 지역사회 전반에 관한 조사를 통한 객관적 통계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랑스님은 "사찰은 포교절대구역을 설정하여 지도를 그려보고, 도표를 작성하고, 인원을 파악하며 관공서의 수와 학교 및 학생 수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당장은 예산이 들고 귀찮은 일이지만 백년 앞을 내다보는 인재불사라는 측면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조사와는 별도로,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한 결과 교구본사 포교국장 소임자는 7곳을 제외하고 교체된 것으로 밝혀졌다. 포교국장이 공석인 교구본사도 3곳으로 나타났다. 94년 개혁종단 출범 이후 종단정치와 무관하게 포교와 교육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포교원과 교육원을 법원으로 설치한 취지가 교구본사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이에따라 지역포교의 구심점인 교구본사의 포교활성화를 위한 종단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성운 기자

목어

도선 열반 1100년

이광준박사(동서심리학연구소 대표)는 선심리학자다. 젊은날 도선사에 살았던 그는 전생에 도선국사(827~898)와 인연이 깊었나 보다.

"1988년 음 3월(4월6일)은 도선국사 열반 1100주기입니다. 국사께서는 민족의 안녕을 위해 전국토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찰을 개창 또는 중창하셨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천년대계를 세워주신 그 유덕을 알고서 어찌 국사의 진면목을 추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박사는 지난해 도선국사의 비보적 평화론과 선사상을 기리기 위해 '도선국사 열반 1100주년 기념 국제불교학술대회 추진위원회'란 이름을 내 걸었다. 그러나 후원하겠다는 사람도 절도 단체도 기업체도 없었다. 결국 그는 넉넉치 않은 자기 주머니를 털어 국내외 학자 10명에게 원고를 청탁했다.

세미나를 열어 왜곡되거나 덜 밝혀진 국사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한줄기 빛을 찾겠다는 일념에서였다. 춘삼월이 되었으나 IMF까지 겹쳐 그의 꿈은 꽃을 피울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이박사는 꿈을 버리지 않았다. "가을로 행사를 미뤘습니다."

사람들은 도선국사를 말할때 먼저 '풍수'를 연상한다. 스님을 풍수도참가로 오인하는 그 잘못을 바로잡아 도선사상을 제대로 이해하면 국토를 효율적으로 평화적으로 가꿀 수 있다는 것이 이박사의 지론이다.

도선국사가 보여준 풍수의 본질은 무엇일까. 스님은 땅을 살아있는 사람의 몸처럼 보았다. 침뜸에서 기가 과한 곳은 사해주고 허한곳은 보해주듯 그 원리를 땅에 적용한것이 비보(裨補)사탑설 이다.

옥룡사의 경우 습지를 숯으로 메운후 절을 세웠다. 진양용암사지에는 물이없다. 스님은 그곳에 절을 세워 기를 돌렸다.

"인심과 산천지세는 서로 닮지 않음이 없다. 인심이 불합하니 지역마다 나뉘어 九韓을 만들기도 하고 三韓을 만들기도 한다. 부처의 道를 약쑥으로 삼아 '병든 산천'을 치료하도록 한다."

과학적 인식을 기반으로한 도선국사의 나라사랑 비보사상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무설설 무법법'의 화두를 타파한 스님의 화두를 되새겨 보자.

中信會 송회장 종단비판 사퇴성명 반응

"종단정서 무시 갈등만 야기"
"정재운용 등 근본문제 지적"

"종단정서를 무시한 주장은 갈등만 일으킨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계종중앙신도회 송재건회장의 사퇴성명서 내용을 둘러싸고 교계에 찬반논쟁이 일고 있다.

중앙신도회 공식기구인 운영위원회에서 송회장의 사표가 반려됨에 따라 사퇴논란은 일단락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성명서라는 마지막 카드를 던졌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주고 있다.

송회장은 3월2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종단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중앙신도회장이라는 무게있는 소임자가 종단을 향해 거침없는 말을 던졌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더해준다.

송회장은 성명에서 승가와 재가를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로 비유하고 "의사와 환자는 상호교감이 있어야 하지만 조계종의 종무행정은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법칙을 벗어나 있다"고 진단했다. 사부대중이 종단구성원이지만 현재의 종단은 승가중심의 '외다리 종무행정'이라고 몰아쳤다.

"일부인긴 하지만 승적은 종단에 두고도 부처님 정재를 개인 또는 법인이라는 명목하에 세속화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예민한 사안인 정재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다가는 자칫 군소종파로 전락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사부대중이 동참하는 종단으로 부상하여 불교가 이 땅의 안식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을 비롯한 각계의 반응이 즉각 나타났다. 총무부장 원우스님은 "공인이 자주 사퇴얘기를 꺼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말로 불편함을 드러냈다.

포교사단 임동현사무국장은 "옳은 지적이라 해서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고 "종단의 정서와 현실을 무시한 주장은 자칫 갈등의 소지만 될 뿐"이라고 밝혔다. 또 "송회장의 주장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신도회장이라는 힘을 이용해 중앙신도회의 조직화에 먼저 힘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산반야회 김재일회장은 "성명서의 내용은 경청할만 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회장은 "성명 발표의 배경이 어찌됐든 승가중심의 종단운영을 비판하고 삼보정재의 투명한 운영을 촉구한 내용은 종단이 근본적으로 반성해야 할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회장의 사퇴성명을 계기로 '승가-재가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위한 토론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성운 기자

수요 인터뷰 강북장애인복지관장 혜창스님

"불교사회복지 다양화 계기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은 17일 강북구 번동 306-12번지에 교계 최초로 강북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한다. 94년 11월 조계종 개혁회의가 제정한 종헌 제21장 제117조 1항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교사회복지원을 둔다'는 조항에 따라 4년만인 지난 3월19일 초대 사회복지원장에 취임한 관장 혜창스님을 만났다. 〈편집자 주〉

- 강북장애인복지관 개관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강북장애인복지관은 올해 사업중 시범복지시설 육성을 위한 1차 사업의 하나로서 최초의 재단직영시설이 됩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통해 물리치료사, 특수교사, 상담전문가, 직업훈련가, 의료인력 등 전문인력의 확보 및 장애인 복지프로그램의 전문화를 이뤄 계속 늘어나는 장애인관련 기관을 수탁 및 설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기초로 불교 사회복지사업의 다양화와 전문화의 발판을 다질 계획입니다.

-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말씀해 주시죠.

▲대지 1백28평, 연건평(지하1층 지상6층) 412평 규모의 복지관에 재활의료실과 보호작업장, 상담실, 목욕탕, 강당, 사무실 등을 완비해 장애인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종합 복지시설로 손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이용 장애인과 자원봉사자들의 편의를 위해 조계사와 복지관을 왕복하는 차량을 운행할 예정이며, 중증 장애인을 위해서는 특수차량을 이용해 재택 서비스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 17일 개관식과 동시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도 개최할 예정이시죠.

▲장애가 심하여 활동이 어렵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세상체험을 할 수 없는 장애인들을 초청, 장애인들의 경험의 폭을 넓혀주고 일반인들의 관심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교계 및 강북구 장애인 시설 장애인 2백여명과 조계종 자원봉사단 2백여명이 하나가 되어 복지관에 재활의료실등 시설 완비 장애인 문화공연등 추진

서 드림랜드까지 장애인 걷기 대회, 장애인 체험, 장애인놀이시설 이용, 문화공연 등을 곁들이게 됩니다. 호응이 좋으면 매년 행사를 가질 생각입니다.

- 사회복지원장으로서 활동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계는 그간 사회복지재단과 각 사회복지법인, 사찰 등을 중심으로 많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관, 직업훈련기관, 일시보호소, 치매센터, 상담기관 등의 분야는 미약해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처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교계의 여러 사회복지법인과의 연대·협조 등을 통해 이같은 미개척 분야를 개발하면서 불교사회복지사업의 질적인 성장도 도모 하겠습니다. IMF 사태로 양산되고 있는 노숙자들을 위한 지원대책도 마련중입니다. 사찰 및 복지관 경로식당과 사설 무료급식소를 활용, 보건복지부와 연계해 구호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김재경 기자

북동포에게 국수 보시합시다

■ 은행계좌
· 국민은행 006-21-0808-274
· 농협 053-01-237065
· 우체국 010041-0302852

■ 지로번호 7602812

예금주: 금강국수
문의처: (02)735-5559

현대불교신문사 금강국수공장후원회

(香妃) 천연방향약용식물을 이용한 여성질병의 치료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香妃(향비)란?
A Queen Consort

향기로운 香(냄새)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미를 상징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로 모태에서 영양공급을 받는 것처럼, 향비(香妃)는 인체공학적인 모형의 퀸 밴드에 천연방향약용식물(天然芳香藥用植物)인 향비를 넣어 여성이 착용할 때, 러세포에 신선한 산소와 자연의 정기인 파이톤 사이드(Phytoncide)를 공급해 줌으로 향비는 모든 여성을 신세계(新世界)로 창출(創出)시켜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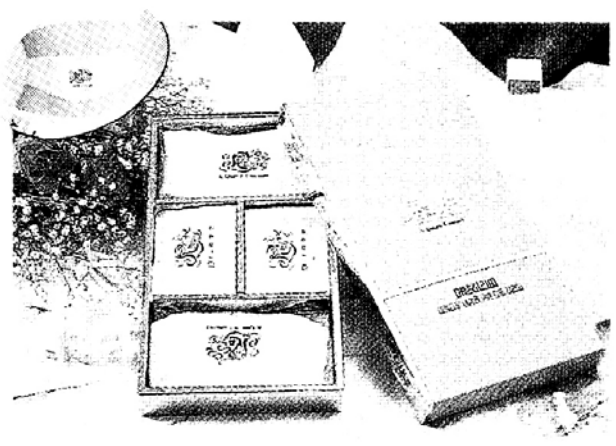
내분비계 개선효과 큰 (향비)
생리통, 기미효과 탁월

"여성들에게 있어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특히 기미 등이 생기는 것은 쉽게 말해 인체의 신양부족(伸陽不足)으로 인한 내분비계 이상이 그 원인이 된다. 즉 내분비계가 문란해지면 일차적으로 여러 종류의 부인과 질병이 발생합니다. 곧이어 기(氣)가 막히고 혈(血)이 뭉치게 되면서 혈맥소통이 잘 안되게 돼 점차적으로는 얼굴 부위에 미세혈관의 순환장애가 오고 그것이오래되면 기미가 생기게 됩니다. 미용허리띠 향비는 바로 인체 내의 이러한 부전상태를 차단합니다."

● 과학적으로 알아보는 향의 효능 ●

20세기초 프랑스의 비교 병리학자 R. U. 갈드판세에 의하여 방향성분이 들어있는 생약과 각종 향신료를 직접 치료에 응용하는 영역을 개발하였다. 이의 결과는 매우 흡족한 것이어서 향기는 정신을 안정시키고, 집중시키며, 수면이나 각종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

동의보감에도 향보(香譜)라 하여 각종 향의 질병별 처방이 상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향은 인간의 정신적 안정과 여러가지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2)755-9821, (080)200-4545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해당되는 증상에 (O) 하십시요.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0.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1.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2.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다. ( )
13.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4.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다. ( )
15.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6. 변비가 있다. ( )
17. 당뇨와 갑상선으로 고통을 받는다. (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두통, 관절염, 방광염(오줌소태)이 좋아짐
인천시 북구 산곡동

저는 3세의 주부로서 갱년기 장애로 인하여 건강상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과 후에 심한 피로와 두통 또는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오줌소태 등의 증상이 있었습니다. 좋다는 건강식품 또는 병원에서 권하는 물리치료등을 해보았으나 일시적인 효과일 뿐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향 요법을 써보라는 소개로 "향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하는 의문도 있었지만 주위의 권유로 인하여 향비를 착용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두통과 피로를 느끼지 못하더니 향비착용후에는 관절염으로 인한 다리의 통증이 없어졌고 제가 항상 고민하던 방광염이 좋아졌습니다.
향비의 놀라운 효과에 지금은 나와 가족과 이웃에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신 "향비"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